

손흥민, 이집트전서 3경기 연속골 도전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6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상대 이집트를 상대로 A매치 3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2일 브라질(1-5), 6일 칠레(2-0), 10일 파라과이(2-2)에 이은 6월 네 번째 평가전으로 이번 연전의 마지막 승부다.

이집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2위로 한국(29위)보다 약간 아래에 있다.

이번 경기는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의 골잡이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살라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의 자존심 대결을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선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은 그동안 이집트와 17차례 싸워 5승7무5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0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으로 한국이 0-1로 패했다.

2001년 4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

이집트 공격수 살라, 부상으로 합류 안 해

내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경기, 2-2로 비긴 대한민국 손흥민이 그리운 드롭을 들며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린 LG컵 4개국 친선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했다. 하석주, 안효연의 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이번에 승리하면 21년 만이다.

한국은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펼감하며 1-5로 완패했지만 칠레전에 선수적 우위를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어 파라과이전에서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0-2로 뒤집어ざ기 손흥민, 정우영(프

라이브루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극적인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칠레, 파라과이전에서 연이어 프리킥으로 골을 터뜨렸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경기 연속으로 프리킥 골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가입과 2경기 연속 프리킥 골을 기록한 손흥민이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흥미롭다.

손흥민은 앞서 A매치 2경기 연속 골을 6차례 기록했으나 3경기 연속 골은 한 번도 없었다. A매치 101경기에서 33골을 기록 중이다.

수비 문제점을 보완할 해답이 나올지도 관심 사다.

간판 중앙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가 부상으로 6월 소집에 합류하지 못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알 사드)마저 원쪽 발복과 정강이 근육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집트는 지난 10일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D조 2차전에서 0-2로 패했다. 충격적인 일격을 당했다. 에티오피아는 FIFA랭킹 140위의 약체다.

살라의 이탈과 충격 패배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병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제65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한 신상훈 12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에서 열린 제65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상훈 프로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PGA 제공

K리그2 선두 광주 13경기 무패 행진

10명 뛴 안양 4-0 대파…올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



승리도 달성했다. 프로축구 통산 최다 홈 연승은 2010년 FC서울의 14연승이다.

승점 44(14승2무2패)가 된 광주는 2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5)과의 승점 차를 9점으로 벌리고 선두를 이어갔다. 안양은 승점 27(7승6무5패)로 리그 4위에 머물렀다.

엄지성이 23세 이하(U-23) 대표팀에 차출된 광주는 이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헤이스(8골)와 허율(4골)을 벤치로 내리고도 막강한 화력을 뽐냈다.

광주는 전반 7분 만에 하승운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전반 21분엔 김종우가 오른발슛으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0-2로 끌려가던 안양은 전반 43분 홍창범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열세까지 놓였다.

광주는 1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FC안양에 4-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광주는 지난 3월26일 충남아산전을 시작으로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11승2무)를 달렸다. 또 K리그2 홈 최다인 10연승을 질주했고, 이번 시즌 전 구단 상대



절룩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에이스 답게 60닝을 책임지는 투hou을 선보였다. 양현종은 1-0으로 앞선 3회초 2사 1루에서 아시엘 푸이그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를 허용했다. 초구 체인 짜임이 그대로 통타 당했다.

하지만 타자들이 곧장 힘을 냈다.

3회말 2사 2루에서 소크라테스의 볼넷으로 주자를 모은 KIA는 최형우의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골장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 등장한 박동원 역시 안우진의 초구를 공략해 좌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날려 KIA가 4-2로 달아났다. 시즌 성적은 6승2패다.

양현종은 1회초 김혜성의 강습 타구에 맞은 원발이 불편한 듯 다리를

8회 최형우의 솔로포로 쇄기를 박았다.

(6회

허를 찌르는 기습

번트에 이은 전력

질주로 1루를 밟아 박수를

받은 최형우는 홈런까지 터뜨리는

등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투수들을 확실히 지원했다.

연패를 막은 KIA는 32승1무26패

로 4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광주FC 하승운 선제골.

프로축구 K리그2 선두 광주FC가 홈 경기 10연승을 달렸다.

광주는 1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FC안양에 4-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광주는 지난 3월26일 충남아산전을 시작으로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11승2무)를 달렸다.

안양은 후반에 조나탄, 안드리고 등을 교체 투입하며 만회골을 노렸지만, 교체로 들어온 광주 허율에게 후반 31분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다. 결국 홈에서 4골을 몰아친 광주가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양현종 153번째 승리…스승 넘어 단독 3위

이강철 감독 152승보다 1승 많아…시즌 성적은 6승2패

KIA 타이거즈 대표수 양현종이 KBO리그 다승 단독 3위 자리를 빼쳤다.

양현종은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 선발 등판해 60ning 6피안타 5탈삼진 2실점과 함께 152승을 기록했다.

4-2로 앞선 7회 마운드를 장현식에게 넘긴 양현종은 팀이 5-2로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통산 153승을 거둔 양현종은 신인 시절 KIA 투수 코치로 사제의 연을 맺은 이강철(152승) 혼 KT 위즈 감독을 넘어 통산 다승 단독 3위로 올라섰다. 시즌 성적은 6승2패다.

양현종은 1회초 김혜성의 강습 타구에 맞은 원발이 불편한 듯 다리를

걸었지만 타자들이 곧장 힘을 냈다. 3회말 2사 2루에서 소크라테스의 볼넷으로 주자를 모은 KIA는 최형우의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골장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 등장한 박동원 역시 안우진의 초구를 공략해 좌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날려 KIA가 4-2로 달아났다. 시즌 성적은 6승2패다.

양현종은 1회초 김혜성의 강습 타

구에 맞은 원발이 불편한 듯 다리를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